

소형 전기차 인기...광주産 ‘캐스퍼EV’ 첫 수출길

내주 수출용 생산...이달말 선적식 유럽서 주문 쇄도...2600여대 물량 50개국 수출 연 10만대 생산 목표 “유럽 그린정책, 시장 전망도 밝아”

최근 전동화 추세와 소형차량 선호로 소형 전기차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 생산하는 ‘캐스퍼 일렉트릭(EV)’이 다음주 수출용 차량 생산에 돌입, 이달 말 첫 수출에 나선다.

10일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 따르면 영국, 독일 등 유럽 수출을 위한 캐스퍼 EV 양산을 시작한다.

수출용 전기차 생산은 유럽 수출을 위한 인증 절차가 남아 당초 예상했던 15일 보다 하루 이틀 정도 늦어질 순 있으나 다음주부터 본격 생산에 나설 예정이다. 목표량에서 이뤄지는 캐스퍼 EV 선적식도 이달 말께 무리 없이 소화할 전망이다. 선적식에서 약 500대의 캐스퍼 EV를 실은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캐스퍼 일렉트릭이 다음주 수출용 차량 양산에 돌입, 이달 말 수출길에 오른다. 사진은 캐스퍼 일렉트릭 출고전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화물선은 광양항서 환적해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유럽 4개국으로 향한다.

캐스퍼 전기차가 유럽서 흥행하며 이달

에만 총 2600대를 수출한다. 영국이 500대로 가장 많았으며 이외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에서 200~400대씩이다. GGM은 세계 2위 전기차 시장인 유럽을 발판

삼아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세계 50국으로 수출될 예정으로, 캐스퍼 전기차의 연간 생산량을 10만대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이미 국내에서 전기차 포비아를 딛고 지난달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캐스퍼 전기차는 지난달 2075대를 판매, 전달 1439대 대비 판매량이 44% 늘며 그 인기가 계속되고 있다. 또 내년 유럽 전기차 시장이 반등할 것으로 보여 캐스퍼 전기차의 수출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유럽은송환경연합(T&E)은 보고서를 통해 2025년 유럽 연합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24%를 전기차가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EU 신임 집행부가 전기차 친화적인 인사들로 구성돼 이산화탄소 규제 완화보다 지원 가능성이 높아진 점, 지난해 11월 중단됐던 독일의 전기차 보조금이 세액공제 형태로 부활하

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또 차로가 좁고 주차 공간이 적은 유럽에서 소형차 인기가 높은 만큼 캐스퍼 일렉트릭 수출 판매량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운용현 GGM 대표이사는 “적어도 20만대를 생산하면 배터리, 모터 등 핵심기술을 가진 부품기업들을 유치해 GGM을 위한 부품 클러스터까지 형성할 수 있다”면서 “GGM은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GGM은 전기차 생산을 위해 약 430억원을 투입, 캐스퍼 일렉트릭이 지난 7월15일 양산을 시작했다. 캐스퍼 전기차는 현대차와 에너지솔루션이 합작한 NCM 배터리가 탑재되는데 무게 320kg으로 동급 차종 배터리보다 큰 편이다. 이에 항속거리가 315km로 동급 최장이며, 수출용 유럽 모델의 경우 350km로 폭스바겐 등 수입 차량보다 월등한 수준이다.

글·사진·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



광주신세계, ‘레드 킹크랩’ 선배 광주신세계는 본관 지하 1층 수산코너에서 러시아산 레드 킹크랩을 1kg당 6만9800원에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킹크랩 한 마리당 평균 무게는 1.2~2.5kg이다. 식당에서 먹을 경우 킹크랩 가격은 kg당 15만~20만원에 이른다. 한정된 수량만 준비된 만큼 조기 품절 될 수 있다. 광주신세계는 고객이 원할 경우 킹크랩을 찜으로 찌서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요 시간은 약 40분이다.

광주신세계 제공

금호타이어, ‘금빛 총성’ 반효진과 효도챌린지

금호타이어가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공기소총 10m 금메달리스트 반효진 선수와 함께 ‘효도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반효진 선수가 자신의 부모님을 위해 안마의자 챌린지에 성공했다.

반효진 선수는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며, 당시 만 16세로 역대 대한민국 하계 올림픽 ‘최연소 금메달리스트’이자 ‘100번째 금메달’이라는 기록도 새로 썼다. 이번 챌린지는 올림픽 경기 당시를 재연하는 것으로 반효진 선수가 5발 안에 10.4점을 맞추는 미션이었으며, 마지막 발에 10.4점을 정확히 맞추며 챌린지에 성공했다.



또 금호타이어는 반효진 선수의 부친 반재호 씨가 운영하는 금호타이어 매장 리모델링을 지원했다. 반 씨는 11년째 금호타이어 매장을 운영 중이다. 반효진 선수는 “이번 챌린지를 마련해 주신 금호타이어에 감사하며, 부모님이 항상 저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하셨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어 정말 기쁘다”며 소감을 전했다.

박소영 기자

대형마트 3사, 먹거리 할인 행사 ‘풍성’

이마트, ‘국산 생새우 잔치’ 롯데마트, 축산·과일 등 특가 홈플러스, 나들이음식 선배

대형마트가 각종 먹거리를 할인가에 선보이는 행사를 진행한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가을 별미 ‘국산 생(生) 새우’ 잔치를 펼친다. 이날부터 17일까지 국산 가을 생(生) 새우를 100g 당 1900원대에 판매한다. 이마트는 사전 기획을 통해 8일간으로는 역대 최대인 50톤 물량을 준비했다.

또 11일부터 17일까지는 수산물 할인대전을 진행한다. 프리미엄 참다랑어회(팩)을 2만9800원에, 가을 꽃게 100g을 990원에 판매한다. 생 제주은갈치(특, 대, 중)를 각각 1마리 1만1800원대/5900원대/3200원대에 선보인다.

롯데마트도 오는 16일까지 축산·과일·텔리·가공식품 등 핵심 집밥 재료와 반찬 위주로 할인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캐나다산 삼겹살·목심(각 100g/냉장)’을 엘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50% 할인 혜택을 제공해 각 900원대에 특가



대형마트가 올해 마지막 연휴를 기념해 각종 먹거리를 할인가에 선보이는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마트 제공

판매한다. 해당 상품은 13일까지 4일간 한정 판매되며, 1인당 2팩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호주산 청정 와규 전품목’에 대해 행사카드(롯데/신한) 결제 시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요리하다 제주 흑돼지 불고기 2종(각 1kg/냉장)’과 ‘한우 1등급 국거리/불고기(1kg/냉장)’는 엘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각 50%, 40% 할인 판매한다.

또 수산에서는 ‘서해안 햇꽃게(100g)’를 엘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고등어(2마리/생물/국산)’는 6900원대에 판매한다. 술안주로

먹기 좋은 ‘통영 홍가리비(100g)’는 엘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20% 할인해 600원대에 선보인다.

홈플러스 역시 특가 행사를 전개한다. 오는 13일까지 8대카드 결제 시 ‘호주청정우 전품목(일부 품목 홈플러스 온라인 제외)’은 최대 50% 할인하고, 꽃게탕용 소스도 함께 증정하는 ‘냉수마찰 기절꽃게(100g)’는 30% 할인한 1200원대에 판매한다. ‘햇 제주 밀감(2.5kg)’은 10~16일까지 5000원 할인하고, ‘12Brix 맛난이 홍로사과(1.8kg, 봉)’와 ‘15Brix 샤인머스켓(1.2kg, 박스)’은 3000원 할인한다.

16일까지 연휴 캠핑족을 겨냥한 각종 나들이·캠핑 먹거리도 1+1, 최대 반값에 준비했다. ‘육포(전품목)’는 4대카드 결제 시 최대 50% 할인, ‘홈밀 직화용기 밀키트(4종)’는 각 7900원대에, ‘농심 봉지라면/컵라면(40여종)’은 2개 이상 구매 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치킨/너겟(7종)’과 ‘동원 떡볶이의 신 우리쌀 떡볶이(5종, 교차구매 가능)’는 모두 1+1에, ‘세계맥주(60여종)’는 5캔 9900원에 담아갈 수 있다.

나다운 기자

광주은행, 피싱·해킹 피해보상 ‘온가족 안심예금’ 출시

최대 1000만원까지 실손보상

광주은행은 가족의 피싱·해킹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정기예금 상품인 ‘온가족 안심예금’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전년(1451억원) 대비 514억원 증가한 1965억원으로 이 중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미숙한 50대 이상 피해액이 1264억원(65.4%)에 달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30대 이하 피해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해 갈수록 대범하고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사회적 보호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광주은행은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신상품 ‘온가족 안심예금’을 출시했으며, 상품 가입 시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 보험’에 무료로 가입돼 ‘온 가족 자산 지킴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장내용은 이예금을 가입하고 있는 기간 중 발생한 ‘피싱 또는 해킹금융사기(스미싱, 파밍, 메모리해킹 포함)’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를 최대 1000만원까지 실손보상해 준다. 특히, ‘온가족 안심예금’은 금융권 최초로, 예금에 가입하면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입은 피해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해당 상품은 영업점 방문 없이 광주Wa

뱅크(APP)와 모바일웹뱅킹(WEB)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 가능하며, 만 14세 이상의 개인고객 1인 1계좌에 한해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1년제로 가입할 수 있다.

지난 8일 기준 최고 연 3.2%의 금리를 제공하는 ‘온가족 안심예금’은 별도 조건 없이 가입 금액 구간별로 금리가 차등 적용된다. 1000만원 미만은 연 2.3%,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은 연 3.15%, 3000만원 이상은 연 3.2% 금리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고객센터(1600-40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최권범 기자



@j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

#호남대표미디어

#진일보

#전남일보_뉴스서비스

